

교육감 선거 단일화 '물꼬' 합의는 '미지수'

진보 성향 고의숙·송문석 예비후보 단일화 온도 차 고 후보 측 "단일화 최우선 과제... 조만간 공식 제안" 송 후보 측 "정치적 단일화 안돼... 정책부터 논해야"

6·3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에서도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논의가 물꼬를 텄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 맞서 선거에 출마할 고의숙 예비후보가 19일 송문석 예비후보에게 단일화를 전격 제안하면서다.

고의숙 예비후보(전 교육의원)는 이날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송문석 후보께 제안드린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제주 교육의 방향과 단일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단일화 제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예비후보의 단일화 제안은 송문석 예비후보(전 서귀중앙여중 교장)가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송 예비후보는 '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는 입장문을 올려 "특정 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단일화라면 그 길에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단일화가 교육 철학과 정책, 현장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인 김광수 도교육감에 맞선 '진보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고 예비후보와 달리 단일화 대상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전체 조건도 분명히 했다.

현재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현역인 김광수 교육감과 고의숙, 송문석 예비후보의 3파전 구도를 보이고 있다. 현역 교육감에 대항할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교육감 선거는 1 대 1 구도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러한 파급력으로 인해 진보 성향으로 거론되는 두 예비후보의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모여왔다.

하지만 단일화를 놓고 이들 예비후보 간의 온도 차가 감지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는 미지수다. 단일화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되면서다. 이날 'SNS 제안'을 제외하면 공식적인 제안이나 교감도 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번 제안이 단일화의 불씨가 돼 실질적인 협의를 이끌어 낼 여지도 존재한다.

고 예비후보 측은 "단일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 제안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고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SNS



고의숙



송문석

상으로) 물꼬를 텄으니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겠는가"라며 "두 후보가 모두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지 않았다. 송 예비후보와 같은 입장으로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만나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송 예비후보 측은 "끝까지 갈 것"이라며 선거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단일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단일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 예비후보와의 정책적 차별성을 강조하며 선거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다음 주중에 정책 공약집이 출간되면 오는 26일쯤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송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진영 논리로 단일화를 접근하면 과연 누가 좋은 것인가"라며 "교육 전문가로서 순수 정책 중심의 길을 가려 한다"고 했다. 이어 "우선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픈되고 난 다음에 그거(단일화)를 풀어나가는 쪽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라며 "그 전제는 아이 중심, 정책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봄나물 채취하는 주민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9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습지에서 주민들이 봄나물을 채취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이상봉 도의장 제447회 임시회 개회사 "6·3 지방선거, 정책 중심 공정한 선거돼야"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9일 제447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중심의 공정한 선거를 당부했다.

이 의장은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유권자들은 꼼꼼한 정책 검증으로 건전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국제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도민 삶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가 도민 생업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날 27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와 관련해 "제주

가지돌봄과 연계해 제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에 대해서도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를 언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9일간 임시회를 열고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채원기자

도의원 예비주자에게 듣는다 (14)제주시 노형동갑 선거구

4년 만의 리턴매치 성사 여부 관심

민주당 양경호 재선 도전 공관위 "단수공천 심사 중" 국민의힘 김채규 출마 준비



양경호



김채규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은 4년 만의 재대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구 중 한 곳이다.

이 선거구는 한라초등학교, 한라중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등 주요 학교가 조성됐고 도내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와 대형마트 등 상업 시설도 들어선 지역으로, 인구 과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과 하루 약 8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역인 양경호 의원(63)이 재선 도전에 나선다. 다만 최근 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심사(1차) 결과에서 양 의원은 단수 후보자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도당 공관위는 "현재 심사 중으로, 단수 공천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양 의원과 맞붙었던 김채규 전 제주도장애인체육회 부회

장(63)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양 의원은 "노형동은 읍면동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인 만큼 생활 밀착형 현안이 집중됐다"며 "특히 임대 상가 등 침체된 민생경제, 교통 혼잡, 주차 공간 부족, 인구 과밀에 따른 환경·안전·복지 이슈 등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했다.

이어 "사람 중심 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노형오거리 스카이파크 조성 사업과 1100로 에스플레네이드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며 "또 청소년을 위한 수영장을 갖춘 문화체육교양센터를 건립하고, 노후화된 노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 전 부회장은 "출마를 준비 중"이라면서도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다.

<광동보도, 정리=삼다일보 김동진기자>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후보 추가 공모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제주도의원 선거 후보자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총 19곳으로 제주시 갑 지역은 오라동, 연동(을), 노형(갑), 노형(을),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애월읍(을) 등 6곳이다.

특히 제주시을 지역의 경우 구좌읍·우도면, 조천읍, 화북동, 삼양동·봉개동, 아라동(갑), 아라동(을), 일도2동, 이도2동(갑), 이도2동(을), 일도1동·이도2동·건입동 등으로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다.

또 서귀포시 지역은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대정읍, 남원읍 선거구 등 3곳이 대상이다.

추가 접수 기간은 19일부터 20일

까지이며 국민의힘 온라인 공천시ystem(win.peoplepowerparty.kr/)에서 접수 가능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후보자 신청이 저조한 상태로, 19일 기준 32개 선거구 중 예비후보 등록자도 8명에 머물고 있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삼도1·2동, 연동갑, 연동을, 노형동을, 애월읍 갑 등 5곳, 서귀포시 지역은 동홍동과 안덕면, 표선면 선거구만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2차 공모에서도 후보자 신청이 저조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 의무 공천도 쉽지 않은데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입후보 선거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영석기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